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학부모 관계 및 교사소진 간의 관계: 가정연계효능감의 조절효과¹⁾

안거부

장유진²⁾

동남유치원 교사

충북대학교 조교수

〈요약〉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이 교사-학부모 관계 인식과 교사소진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공감능력과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교사-학부모 관계 및 교사소진의 관계에서 가정연계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한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에 근무하는 공·사립 유치원 교사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JAMOVI 1.6.23을 활용하여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 모두 교사-학부모 관계 인식에 유의한 정적효과를 보였다. 둘째,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학부모 관계 인식에서 가정연계효능감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교사의 가정연계효능감이 높을 때($M+1SD$)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교사-학부모 관계 인식이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가정연계효능감이 평균 수준이거나 낮을 때($M-1SD$)는 공감능력이 교사-학부모 관계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 모두 교사소진에 유의한 부적효과를 나타냈으며, 공감능력과 교사소진의 관계에서 가정연계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가 인식한 교사-학부모 관계와 교사소진에 있어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의 역할을 확인하고, 특히 공감능력이 교사-학부모 관계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가정연계효능감 수준에 따라 조절됨을 확인함으로써 가정연계효능감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공감능력, 교사-학부모 관계, 교사소진, 가정연계효능감

1)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요약한 것임.

2) 교신저자, ychang@cbnu.ac.kr

I. 서론

유아기는 전 생애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모든 발달의 기초능력과 평생의 잠재 능력 등 삶에서 중요한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결정적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기의 유아가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서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가장 가까운 것에서부터 가장 먼 것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 체계 즉,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로 분류하였다. 이 중 유아에게 가장 가까운 미시체계는 가정, 유아교육기관, 또래집단 등으로 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며, 이러한 미시체계들 사이의 연결망에 해당하는 중간체계에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가 있다(황혜정 외, 2008). 교사-학부모 관계는 유아를 매개로 이루어진 관계로, 매개인 유아의 연령이 어려서 자신의 의사전달이나 자기표현이 부족하므로 학부모의 적극적 개입이 필수적이다(박양조, 박희숙, 1997). 따라서 교사-학부모 관계는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만큼이나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교사-학부모 관계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더 나은 유아교육의 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협력관계로서,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과 기관의 성공적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권미량, 하현의, 2014). 교사-학부모 관계 인식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 교사-학부모 관계의 인식이 긍정적이면 유아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이는 유아의 인지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지현, 2013). 그러나 교사-학부모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유아교육기관의 학부모 참여를 방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Elicker et al., 1997), 결과적으로 기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고 유아

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학부모 관계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김보영, 김현주, 2013; 김영주, 이경화, 2015; 손환희, 정계숙, 2011; 최서영, 이대균, 2011) 유치원 교사들이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부모의 성향, 다양한 개인적 요구 등에 따른 어려움(김보영, 김현주, 2013),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 무리한 간섭 등의 교권침해(양다경, 이연승, 2016) 등 학부모와 겪는 어려움과 갈등 상황에서 많은 유치원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교사-학부모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교사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데, 이는 교사로 하여금 결국 소진에 이르게 한다(김은진, 2018; 김정미, 백진아, 2018).

소진이란, 직무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탈진의 상태로(Freudenberger, 1974) 개인 삶의 모든 측면에서 무기력함, 동기 저하, 에너지 상실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구은미, 2016). 소진을 측정하는 척도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는 소진을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상실의 세 가지 심리적 차원으로 설명한다(Maslach et al., 1986). 이에 따르면 교사소진이란 교육기관에서 오랫동안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 자원이 고갈되어 에너지의 부족을 느끼고, 유아를 대할 때 냉담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하며, 유아 지도와 같은 업무 의욕이 상실되는 회의감, 무능감이 만연해 있는 상태이다. 교사가 소진상태가 되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의욕 저하 및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정순희 외, 2013). 이는 결국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을 잃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최윤아, 김낙홍, 2015).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소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

교사의 소진상태가 높아지면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낮아지고(노은호, 2012; 유미나, 신나리, 2013), 교사의 이직 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양연숙, 2011; 유현숙, 2013; 윤혜미, 노필순, 2013),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소진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숙, 오현경, 2013; 정순희 외, 2013). 유치원 교사의 유아교육기관과 관련된 환경 즉, 유아, 관리자, 동료 교사, 학부모 등과 밀접한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는 근무환경은 소진을 경험하기 쉽다(박영신, 2017). 특히 학부모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초·중·고등학교보다 교육대상의 특성상 학부모와 직접 마주할 기회가 많은 유치원 교사들이 더 크게 경험하는 측면이다(신혜영, 2004). 유아교사의 소진은 근무여건, 사회적지지 등의 사회적 특성과 공감능력 등 개인적 특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권성민, 2011; 박상희, 문수경, 이무영, 2006; 우수경, 서윤희, 2016) 이 중 공감능력은 교사의 사기저하 및 소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고(정진옥, 손혜경, 2019), 스트레스 상황인 갈등상태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상대방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므로(Guerny, 1977) 소진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 생각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상대와 소통하는 능력을 뜻한다(최현석, 2011). 공감능력은 집단 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도와 갈등 해결을 돕고,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김명화, 2008). 유치원 교사는 유아, 학부모, 관리자, 동료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직업적 특성으로 많은 갈등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부정적인 정서 상태와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감능력이 필요하다(이선미, 2014).

지금까지 이루어진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교

사의 협동적 조직문화에 있어 유아, 학부모, 동료 교사, 관리자 등과의 관계를 통한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감능력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이미나 외, 2016).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부모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고 지지할 때, 부모가 교육기관에 더욱 협력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최자영, 2018), 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손은정, 2016), 공감능력이 의사소통의 핵심요소로 보고된다(이민영, 2017). 공감능력이 높은 교사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잘 읽어낼 수 있으며, 비판하기보다는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성향을 지니게 되는데(권수현, 2011), 이는 유치원 교사들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및 갈등 상황이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원만하게 해결하고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도록 해준다(황인호, 장성화, 2012). 이와같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교사-학부모 관계에 대한 인식과 교사소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학부모 관계 및 교사소진의 관계가 항상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교사의 공감능력이 높아도 어떤 교사들은 쉽게 소진되어 자신과 유아 및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어떤 교사는 공감능력이 높지 않아도 잘 적응하여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유치원 교사의 직무 특성상 학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감능력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과 책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서재경, 2014) 교사가 가정과 연계된 수행에 있어 가정의 주체인 학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신념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황해익 외, 2013).

이와 관련된 교사의 신념과 연관된 개념으로 교사효능감을 들 수 있다(양연

숙, 2006; 정순희, 2013). 교사효능감은 교사 행동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소진 수준이 낮고(정순희, 2013),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사 간의 관계 및 학부모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세루 외, 2009).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다룬 교사효능감은 의사결정 참여, 교재교구사용, 교수, 훈육, 가정연계, 지역연계, 긍정적 학습 환경 조성 등과 같이 폭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어서(김연하, 김양은, 2008),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진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언급된 교사효능감을 구성하는 요인 중 하나인 가정연계효능감(efficacy to enlist parental involvement)에 주목하였다.

가정연계효능감은 교사가 유아의 학습에 학부모를 얼마만큼 참여하게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교사의 믿음으로(김연하, 김양은, 2008) ‘유치원 활동에 학부모들을 참여하게 할 수 있는가?’, ‘유아가 유치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하는 방법을 학부모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가?’, ‘유치원을 학부모들이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가?’ 와 같이 가정과 연계된 영역에서 교사가 학부모와 긍정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정도와 그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사 자신이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서로 신뢰하며,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믿음으로써 학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김유정 외, 2012). 이러한 가정연계효능감은 학부모와 보다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바탕이 되며, 이를 통해 유아에 대해 많은 배경지식을 갖게 되고, 교사가 행하는 교육에 자신감을 갖게 하여 교사로서의 역할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학부모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학부모로부터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학부모의 호응으로 인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효과적인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Swap, 1993).

그러나 지금까지 유치원 교사의 가정연계효능감에 대한 국내연구로는 유아 교사의 가정연계효능감이 부모와의 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학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는(김유정 외, 2012)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유치원 교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특성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종합해볼 때,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학부모 관계 및 교사소진 간의 관계가 가정연계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연계효능감이 높거나 낮을 때 공감능력이 교사가 인식하는 학부모와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유치원 교사의 직무 중 학부모와 관련된 누적된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는 교사소진에서도 가정연계효능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사-학부모 관계의 인식 및 교사소진에 미치는 효과가 가정연계효능감에 따라 유의하게 조절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교사-학부모 관계와 교사소진과 관련된 유치원 교사의 특성을 확인하고, 유치원 교사들이 교사-학부모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교사소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학부모 관계에서 가정연계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한가?

연구문제 2.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소진과의 관계에서 가정연계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북지역의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공·사립 유치원 교사로, 응답자는 모두 여성이다. 유치원 교사가 근무하는 곳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인쇄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합하고, 온라인상(충북 소통 메신저)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인쇄된 설문지 95부와 온라인 설문지 125부 총 220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응답으로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후, 총 208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 특성 (N=208)

변인	구분	빈도(명)	비율(%)
기관유형	공립유치원	135	64.9 %
	사립유치원	73	35.1 %
소속지역	도시지역	151	72.6 %
	읍면지역	57	27.4 %
담당연령	만3세	62	29.8 %
	만4세	54	26.0 %
	만5세	64	30.8 %
	혼합연령	14	6.7 %
	기타	14	6.7 %
나이	20대	81	38.9 %
	30대	55	26.4 %
	40대	59	28.4 %
	50대 이상	13	6.3 %
경력	3년 미만	34	16.3 %
	3-6년 미만	68	32.7 %
	6-9년 미만	34	16.3 %
	9-12년 미만	20	9.6 %
	12년 이상	52	25.0 %
최종 학력	대학(3년제 이하)	57	27.4 %
	대학교 졸업	106	51.0 %
	석사 수료	9	4.3 %
	석사 졸업	36	17.3 %

2. 측정 도구

1) 공감능력 척도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Mehrabin, Epstein(1972), Davis(1994)이 제작한 IRI(Interpersonal Reaction Index) 검사를 박성희(1994)가 수정, 보완하고 전병성(2003)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요소 15문항, 정서적 요소 15문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요소 문항의 예는 ‘나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일어난 상황을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듣는 편이다’이며, 정서적 요소 문항의 예는 ‘다른 사람이 웃는 것을 보면 내 마음도 즐거워진다’이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0문항 중 6개 문항은 역채점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인지공감 .73, 정서공감 .81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84로 나타났다.

2) 교사-학부모 관계 척도

유치원 교사가 지각하는 교사-부모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강혜영(1995)이 번안한 Horvarth와 Greenberg(1989)의 Working Alliance Inventory: WAI(작업동맹척도) 문항의 일부를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관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WAI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목표 합의, 과제동의, 유대감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6문항이다. 이 중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느끼는 유대감에 해당하는 문항 12문항 중에서(예: 나는 내담자와 관계가 좋다. 나는 내담자와 서로 신뢰하고 있다 등)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관계에 대입할 수 있는 ‘나는 학부모와 관계가 좋다.’, ‘학부모와 나는 서로 신뢰하고 있다.’, ‘학부모와

나는 서로 소통하고 있다.’의 3개 문항으로 유치원 교사가 지각하는 교사-학부모 관계를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해서 응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지각하는 교사-학부모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교사-학부모 관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92로 나타났다.

3) 교사소진 척도

유치원 교사의 교사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최초의 소진 척도인 MBI 중 교육자용 버전으로 개발된 MBI-ES의 22개 문항 중 정송, 노연경(2020)이 내용 타당도 검증과 통계분석을 종합하여 10개의 문항으로 최종 선정한 한국형 교사소진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 예는 ‘나는 내가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진다’이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해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지각하는 교사소진이 높음을 의미한다. 10문항 중 개인적 성취감 하위요인 문항인 3, 4, 9번 문항은 역채점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정서적 고갈 .80, 개인적 성취감 .69, 비인간화 .70이었으며,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84로 나타났다.

4) 가정연계효능감 척도

유치원 교사의 가정연계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Bandura(2006)의 Teacher Self-efficacy Scale(TSES)을 김연하와 김양은(2008)이 국내의 실정에 맞게 우리말로 수정하고 번안한 척도에서 가정연계효능감과 관련된 하위 척도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유치원 활동에 학부모들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자녀

가 유치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하는 방법을 학부모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유치원을 학부모들이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습니까?'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교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지각하는 가정연계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치원 교사의 가정연계효능감 측정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75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JAMOV 1.6.23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치(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와 변인 간 상관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학부모 관계를 가정연계효능감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유치원 교사의 배경 변인 중 교사-학부모 관계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기관 유형(더미변수의 형태로 투입)과 교사의 학력수준(연속변수로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학력을 나타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립변수(공감능력)와 조절변수(가정연계효능감)를 평균중심화한 값을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우, 구체적인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순기울기(simple slope)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소진의 관계를 가정연계효능감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유치원 교사 배경 변인 중 교사소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기관 유형과 교사의 학력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고, 독립변수(공감능력)와 조절변수(가정연계효능감)를 평균중심화한 값을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수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변수들의 왜도의 절대값은 최소 0.04부터 최대 0.33까지, 첨도의 절대값은 최소 0.03부터 최대 0.48까지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0과 7.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변인들의 분포가 정상분포라는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urran et al., 1996).

상관분석 결과,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 교사-학부모 관계, 교사소진, 가정연계효능감 간에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은 가정연계효능감($r = .251, p < .001$), 교사-학부모 관계($r = .232,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교사소진($r = -.321,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가정연계효능감은 교사-학부모 관계($r = .579,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교사소진($r = -.341,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교사-학부모 관계 인식도 교사소진($r = -.327,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변인	1	2	3	4
1. 공감능력	-			
2. 가정연계효능감	.251***	-		
3. 교사-학부모 관계	.232***	.579***	-	
4. 교사 소진	-.321***	-.341***	-.327***	-
평균	3.95	3.70	3.91	2.38
표준편차	0.36	0.69	0.59	0.60
왜도	-0.33	-0.04	0.16	0.26
첨도	0.37	-0.03	-0.35	-0.48

* $p < .05$, ** $p < .01$, *** $p < .001$

2.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이 교사-학부모 관계에 미치는 효과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 효능감이 교사-학부모 관계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통제변수인 기관 유형과 학력을 투입한 1단계에서 4%,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을 투입한 2단계에서 35.7%,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 37.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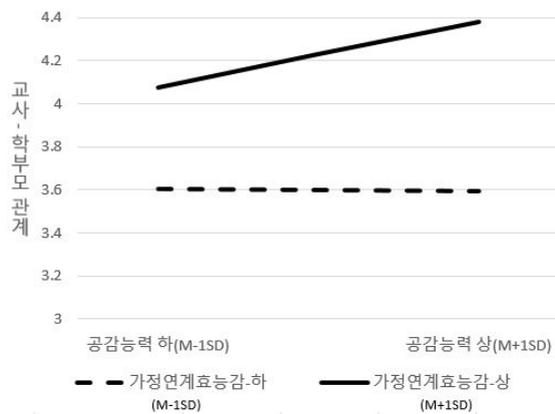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상호작용항까지 투입하였을 때 통제변수 중 기관 유형($\beta = -.154, p < .05$)이 교사-학부모 관계를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연계효능감($\beta = .510, p < .001$)은 교사-학부모 관계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비해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가정연계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교사-학부모 관계가 긍정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기 전 공감능력은 교사-학부모 관계 인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후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beta = .130, p < .05$)이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교사-학부모 관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감능력이 교사-학부모 관계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가정연계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표 3>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이 교사-학부모 관계에 미치는 효과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t	B	β	t	B	β	t
(상수)	3.913		97.36***	3.914		118.339***	3.894		114.491***
기관유형	-.281	-.228	-2.76**	-.177	-.144	-2.04*	-.189	-.154	-2.19***
학력	.114	.194	2.35*	.031	.053	.77	.038	.065	.93
공감능력				.204	.124	2.06*	.169	.103	1.70
가정연계효능감				.455	.531	8.86***	.437	.510	8.47***
공감능력 *가정연계효능감							.311	.130	2.11*
F		4.29*			28.137***			23.783***	
R ²		.040*			.357***			.371***	
ΔR^2		.040			.317***			.014*	

Note. 기관유형: 0=사립유치원, 1=공립유치원, * $p < .05$, ** $p < .01$, *** $p < .001$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평균±1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가정연계효능감이 높은집단과 낮은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공감능력이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교사-학부모 관계에 미치는 단순 기울기를 검증하였다.



[그림1] 공감능력과 교사-학부모 관계에서 가정연계효능감의 조절효과

공감능력과 교사-학부모 관계 간에서 가정연계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가정연계효능감이 평균수준 및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경우($M-1SD$)에는 공감능력이 유치원 교사가 인식한 교사-학부모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경우($M+1SD$)에는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유치원 교사가 인식한 교사-학부모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치원 교사의 가정연계효능감이 높을 때에만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유치원 교사가 인식한 교사-학부모 관계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3.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이 교사소진에 미치는 효과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 효능감이 교사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통제변수인 기관 유형과 학력을 투입한 1단계에서 1.7%,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을 투입한 2단계에서 17.8%로 나타났으며,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는 18.5%로 나타났다.

<표 4>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이 교사소진에 미치는 효과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i>B</i>	β	<i>t</i>	<i>B</i>	β	<i>t</i>	<i>B</i>	β	<i>t</i>
(상수)	2.375		57.473***	2.375		62.553***	2.361		60.062***
기관유형	-.033	-.026	-.32	-.045	-.036	-.45	-.053	-.043	-.53
학력	-.068	-.114	-1.36	-.016	-.026	-.34	-.011	-.018	-.23
공감능력				-.374	-.236	-3.46***	-.419	-.251	-3.63***
가정연계효능감				-.245	-.281	-4.15***	-.257	-.296	-4.32***
공감능력 *가정연계효능감							.223	.092	1.31
<i>F</i>		1.767			11.007***			9.179***	
<i>R</i> ²		.017			.178			.185	
ΔR^2		.017			.161			.007	

Note. 기관유형: 0=사립유치원, 1=공립유치원, * $p < .05$, ** $p < .01$, *** $p < .001$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통제변수로 투입된 기관유형과 학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beta = -.251, p < .001$)과 가정연계효능감($\beta = -.296, p < .001$)은 모두 교사소진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소진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이 교사 소진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이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교사-학부모 관계와 교사소진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공감능력과 교사-학부모 관계 인식 및 교사소진의 관계에서 가정연계효능감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은 각각 교사-학부모 관계에 대한 인식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치원 교사는 교사-학부모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공감능력이 높은 교사는 학부모의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잘 읽어낼 수 있고, 학부모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를 비판하기보다는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권수현, 2011)와 유사하고, 학부모와의 갈등 및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원만하게 해결하고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한다고 보고한 결과(황인호, 장성화, 2012)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가정과의 소통이 중시되고 있고,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상황들에 잘 대처하기 위해 공감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

에서 이루어진 가정연계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지만, 교사효능감과 관련지어 부모-교사 협력관계가 교사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류경희, 강상(2015)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류경희, 강상(2015)은 부모와 교사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적일 때 교사효능감이 증진된다고 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 교사의 가정연계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학부모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나타난 점은 가정연계효능감이 학부모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공감능력이 교사-학부모 관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가정연계효능감에 의해 유의하게 조절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정연계효능감이 낮거나($M-1SD$) 평균수준인 경우에는 공감능력이 유치원 교사가 인식한 교사-학부모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높은 경우($M+1SD$)에는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교사-학부모 관계에 대한 인식이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교사가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인 가정연계효능감을 높게 지각할 때, 교사가 가진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교사-학부모 관계 인식에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부모와의 관계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사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부모와의 관계 형성과 부모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김유정 외, 2012.).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학부모 관계 인식에 있어 가정연계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의 참여 및 협력 등의 다양한 성취경험을 가짐으로써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교사 자신이 잘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유치원 교사의 가정연계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된다면 더욱 긍정적인 교사-학부모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은 각각 교사소진을 부적으

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공감능력과 교사소진의 관계에서 가정연계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소진이 낮게 나타남을 의미하고 반대로,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이 낮을수록 교사소진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능력이 교사소진에 미치는 부적효과는 선행연구에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소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박은숙, 2018), 직무소진이 다차원적 공감능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정진옥, 손혜경, 2019)도 맥을 같이 한다. 공감능력은 유치원 교사가 현장에서 유아, 동료 교사, 관리자 및 학부모들과의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해주고, 원만한 관계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므로(박지현, 2019), 소진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가정연계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부적 효과는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심리적 소진 간에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난 연구(오선진, 2016)와 교사효능감과 소진의 상관관계에서 개인적 교사효능감이 신체적, 정신적 고갈, 무능감, 소진 총점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인 연구(이병임, 2014), 소진과 관련된 유아교사의 심리적 변인 중 교사효능감이 소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권나연, 이희영, 2012) 등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와 관계를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교사 자신의 신념인 가정연계효능감이 학부모와의 갈등, 어려움 등에 있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학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와주어 소진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들이 가정연계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교사-학부모 관계와 교사소진에 있어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의 역할을 확인하고, 특히 공감능력이 교사-학부모 관계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가정연계효능감 수준에 따라 조절됨을 확인함으로써

써 가정연계효능감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교사-학부모 관계가 중시되고 있는 유아교육현장에서 가정연계효능감에 관심을 갖고 학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예비 및 경력 교사들의 가정연계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충청북도에서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자가 임의로 유치원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다양한 지역의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유치원 교사가 인식한 교사-학부모 관계를 종속변수로 다루었는데 다소 적은 수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학부모 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하여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이 교사-학부모 관계의 다양한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입장에서 지각한 교사-학부모 관계에 초점을 두어,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인식이 실제 교사-학부모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사-학부모 관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보다 풍부한 자료를 수집한다면, 유치원 교사의 교사-학부모 관계에 대한 더욱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선아(2008). 사립유치원 초임교사와 경력교사가 학부모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보람에 관한 이야기.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구은미(2016). 보육교사의 건강과 소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99, 1-17.
- 권나연, 이희영(2012). 유치원 교사의 직무환경 위험요소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의 역할.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199-218.
- 권미량, 하연희(2014).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와 교사의 관계성 탐색. **유아교육연구**, 34(4), 281-302.
- 권성민(2011). 유아교사에 대한 사회지지가 업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소진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6(5), 313-333.
- 권수현(2011). 예비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 분석. **육아지원연구**, 6(1), 47-66.
- 김경미(2017). 유치원 교사의 수업화법능력과 공감능력 및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간 관계.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 김명화(2008). 간호대학생의 자아 정체감, 대인관계 및 적응에 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1), 55-64.
- 김보영, 김현주(2013). 교사-부모 관계에서 경험하는 유치원 교사의 어려움.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6), 73-106.
- 김병만, 김미진(2016). 유아교사의 사회적 상호작용능력과 행복감의 관계. **생태유아교육연구**, 15(4), 169-192.
- 김세루, 천혜경, 안상화, 홍혜경 (2009).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전문성 인식 및 의사소통능력의 관계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3(6), 5-25.
- 김신재(1987). 유치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유정, 박지혜, 안선희(2012). 보육교사의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가정연계 효능감이 부모-교사 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33(5), 71-89.
- 김은숙, 오현경(2013).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전문성 인식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의 관계 연구. **한국한부모가정학**, 6(1), 27-48.
- 김은진(2018).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 관계에서 교사 마음챙김의 효과. **대한스트레스학회**, 26(3), 208-214.
- 김연하, 김양은(2008). Bandura의 교사 자기 효능감 척도(Teacher Self-efficacy Scale) 요인구조분석. **유아교육연구**, 28(2), 169-191.

- 김영주, 이경화(2015). 유아교사의 관점에서 본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과정: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5), 237-260.
- 김유정, 박지혜, 안선희(2012). 보육교사의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그리고 가정연계 효능감이 부모-교사협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5), 71-89.
- 김정미, 백진아(2018).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합연구**, 16(3), 321-331.
- 노은호(2012). 보육환경의 질이 교사의 직무만족과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2(2), 67-83.
- 류경희, 강상(2015). 유아교사의 정서지능, 동료교사 협력관계, 부모-교사 협력관계와 교사효능감간의 구조모형 분석.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19(2), 203-225.
- 마지순 (2019).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직원리,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7), 325-331.
- 박상희, 문수경, 이무영(2006). 보육교사의 소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6), 65-84.
- 박양조, 박희숙(1997).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 및 영유아와의 인간관계. **교육논총**, 16, 169-186.
- 박영신(2017). 정서적 지원과 직무 스트레스가 유아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경력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9(4), 309-325.
- 박은숙(2018).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 및 교사-부모 협력이 심리적소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남서울대학교.
- 박지현(2019). 보육교사의 대인관계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과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서재경(2014). 학부모 및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보육교사-학부모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어려움과 보육교사 효능감과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서홍숙, 이희영, 최태진(2017).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집단자존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문화연구**, 51, 187-202.
- 손환희, 정계숙 (2011).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1), 213-232.
- 손은정(2016). 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및 정서표현성과 유아교사-부모 간 의사소통 수준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신혜영(2004). 어린이집 교사의 스트레스와 효능감이 교사 행동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엄현옥(2013). 자녀를 근무기관에 취원시킨 보육교사의 경험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양다경, 이연승(2016). 유치원 교사의 교권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4), 755-776
- 양연숙(2006). 장애전담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소진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7, 175-195.
- 오선진(2016).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 교사효능감, 심리적소진 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80-181.
- 우수경, 서윤희(2016). 예비유아교사의 낙관성과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 21(1), 367-384.
- 유미나, 신나리(2013). 보육교사의 소진과 관련된 직무만족도와 직장 내 사회적지지. **생애학회지**, 3(2), 73-85.
- 유현숙(2013).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조직헌신, 소진과 이직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윤혜미, 노필순(2013).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경력몰입, 소진과 이직의도 간 관계. **한국아동복지학**, 43, 157-184.
- 이미나, 김민정, 정미라(2016). 협동적 조직문화가 유치원교사의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일 가치감의 매개효과 및 공감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25(2), 119-139.
- 이민영(2017). 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사-부모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교사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병임(2014).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정서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4(3), 129-152.
- 이선미(2014). 초등학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공감능력, 정서상태, 직무만족도 차이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장해순(2013). 대학생의 자아노출과 공감능력이 스트레스 지각정도 및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1(3), 5-28.
- 전병성(2003). 공감과 이타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정송, 노연경(2020). 한국형 교사소진 척도(MBI-ES) 타당화. **교원교육**, 36(2), 271-292.
- 정순희(2013). 영아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정순희, 최영미, 이희영(2013). 영아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정서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4), 193-215.
- 정진옥, 손혜경(2019). 민간어린이집 교육교사의 다차원적 공감능력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7), 185-200.
- 최서영, 이대균(2011).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유아교육학 논문집**, 15(5), 77-102.

- 최윤아, 김낙홍(2015). 공립유치원 교사의 발달단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3), 21-43.
- 최자영(2018). 어린이집교사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이 부모-교사 협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최지현(2013). 유아, 어머니, 교사 특성이 어머니-교사 협력관계 및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 횡단 및 종단 연구.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 최현석(2011). (인간의 모든) 감정 : 우리는 왜 슬프고 기쁘고 사랑하고 분노하는가. 서해문집.
- 황인호, 장성화 (2012). 교사의 심리적안녕감, 공감능력, 직무효율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2), 232-242.
- 황혜익, 탁정화 홍성희(2013). 유치원 교사의 회복탄력성,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7(3), 411-432.
- 황혜정, 김경희, 이혜경, 어주경, 나유미(2008). **아동과 환경**. 서울: 학지사.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Publications, Inc.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Elicker, J., & Noppe, I. C. & Fortner-Wood, C. (1997). The parent-caregiver relationship scale: rounding out the relationship system in infant child car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8(1), 83-100.
- Freudenberger, H. J. (1974). *Staff burn-out*. *Journal of Social Issue*, 30(1), 159-165
- Guernsey, E. G., Jr. (1977). *Relationship enhancement : Skill training programs for therapy, problem, prevention, and enrichment*. San Fransisco; Jossey-Bass.
- Horvath, A. O., & Greenberg, L, S.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WAI.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23-233.
- Maslach, C., Jackson, S. E., Leiter, M. P., Schaufeli, W. B., & Schwab, R. L. (1986). *Maslach burnout inventory* (Vol. 21, pp. 3463-3464).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wap, S. M. (1993). *Developing home-schoolpartnerships : From concepts to practice*.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Abstract

Kindergarten Teachers' Empathy, Parent-teacher Relationships, and Teacher Burnout: The Moderating Role of Teacher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Geo-bu An

Yujin Chang

Dongnam kindergarten, Teache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This study examines how kindergarten teachers' empathy and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predict perceived parent-teacher relationships and teacher burnout. It also investigates whether teacher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empathy, perceived parent-teacher relationships, and teacher burnout. A total of 208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employed in the Chungbuk area participated in a survey,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JAMOVI (version 1.6.23). There were three major findings. First, both kindergarten teachers' empathy and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positively predicted perceived parent-teacher relationship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teacher empathy and teacher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on perceived parent-teacher relationships. Specifically, when teacher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was high ($M+1SD$), teacher empathy significantly positively predicted parent-teacher relationships. By contrast, when teacher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was average or low ($M-1SD$), the effect of teacher empathy on the perceived parent-teacher relationships was not significant. Third, both kindergarten teachers' empathy and teacher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negatively predicted teacher burnout,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teacher empathy and teacher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on teacher burnout. This study identified the role of teacher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within the context of kindergarten teacher-parent relationships and teacher burnout. It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teacher empathy on parent-teacher relationships is moderated by the level of teacher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Key words: empathy, parent-teacher relationship, teacher burnout,
teacher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논문투고일자: 2021.04.07.

논문심사일자: 2021.04.20.

게재확정일자: 2021.04.27.